

COSMETIC REPORT

발행처 (사)대한화장품협회
발행월 2016년 1월 첫째주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 의 Tel : 02-785-7985
Fax : 02-782-6659
E-mail : jacklbs@kcia.or.kr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

CONTENTS

화장품 정보 03

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中, 새해부터 관세인하 품목 확대 [코스모닝]

[2017 유통업계 기상도]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로 위기극복 [아주경제]

〈해외화장품시장동향〉

사우디 미용용품시장 성장세 지속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법령 정보 14

협회 업무추진현황 16

행사 소식 23

회원사 뉴스 27

화장품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화장품 산업계 동향

2017년 식·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17.1.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고 밝혔으며,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화장품분야에서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가 있음

- 관련링크:

<http://www.mfds.go.kr/index.do?mid=675&seq=34964>

내년부터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표시('16.12.28)

- 내년부터 샘플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시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소용량(10g 또는 10ml)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 포장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됨

- 관련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1554&ref=A>

원산지 증명서, 전자시스템으로 간편해진 다!('16.12.29)

- 관세청(청장 천홍욱·www.customs.go.kr)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원활한 이

행을 위해 구축한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하 CO-PASS)'이 지난 28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음

- 28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교환된 경우 중국 세관에 추가적인 원산지증명서(이하 C/O, Certificate of Origin) 원본 서류 제출 없이 한중 FTA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됨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원산지증명서-제출없이-한중-fta-특혜-적용/>

中, 새해부터 관세인하 품목 확대('16.12.29)

- 중국이 내년 잠정관세율 대상품목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중 FTA 발효 3년 차를 맞아 중국 관세율 문턱이 크게 낮아짐
- 특히 매니큐어용품은 기존 관세율 15%에서 잠정 관세율 10%로, 스킨케어 6.5%에서 2%로, 비누 15%에서 10%로 낮아지는 등 유망 소비재의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한-중 FTA에서 제외된 품목도 일부 포함됐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2017년-중국-수입관세-인하품목-확대/>

K뷰티, 중국서 화장품 가격인하 '초읽기'('17.1.3)

- 중국 북경만보(北京晚报)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사 제품에 대해 최소 7%에서 최대 20%까지 가격인하 시행을 밝혔음

- 이 매체는 '에스티로더 리뉴트리브 메이크업' 제품은 7.30%, '바비브라운 브로우 펜슬'은 12%가량 인하한다는 결정 등 구체적인 브랜드명과 품목, 조정된 가격을 공개한 바 있음

- 관련링크:

<http://www.ebn.co.kr/news/view/869979>

화장품 과장광고 잡는 식약처 '독수리 3자매'('17.1.5)

-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권혁승 사무관은 "이들이 식약처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한 평균 근무 기간은 3년도 채 안 되지만 올해 불법 광고 단속을 4686건이나 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면서 "다들 일당백(一當百) 활약을 해서 '독수리 3자매'로 부른다"고 말했음
-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시장이 점점 성장하면서 소비자 보호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화장품 광고,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관련링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9/2016122900221.html

근거 없이 '24시간 수분' '여드름 완화'...14개 화장품 적발('16.12.29)

-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14개 화장품이 효과 증명 없이 '24시간 수분', '여드름 완화', '콜라겐 생성' 등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문구로 광고를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음
- 식약처는 29일 화장품 표시·광고 103건을 점검한 결과 12개 업체 14개 제품이 효능에 대한 시험 결과·조사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증명에 필요한 문구를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계획임

- 관련링크:

<http://news1.kr/articles/?2870941>

광고실증제 위반 12개사 14건 행정처분('16.12.29)

- 광고 실증제 의무를 위반한 12개사 14건의 화장품 광고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짐
- 식약처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광고 실증제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103건을 점검했으며, 점검 대상 내용은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 △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콜라겐 증가 △보습(예;24시간 지속보습 효과 등) 등임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239/cat/10>

2017년 SWOT 분석/화장품산업('17.1.2)

- 올해 화장품 시장은 지난 3년 간 큰 폭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국내 시장까지 소비위축을 보일 경우 재고 관리 등에 어려움이 예상됨
- 특히 중국 수출량 감소와 국내 판매 모두 감소할 경우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특정 국가 내 판매관리비 요인은 유통 구조의 효율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유통망의 선진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임

- 관련링크: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756>

[2017 신년특집] 한국 화장품 산업 '위기가 기회다'('17.1.2)

- 지난해 고고도 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글로벌 품질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가격'의 한국산 제품이 중화권을 벗어나 유럽과 미국에서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국내 토종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이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이란 측면에서 사드사태가 한국 화장품 산업의 위기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관련링크: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132>

[2017 유통업계 기상도]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로 위기극복('17.1.1)

- 화장품산업은 올해도 두자릿수대 고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수출 부문은 중국의 '한한령' 여파에도 수출국 다변화로 전년보다 25% 가까이 신장할 것으로 보임
-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화장품산업 규모는 생산액 기준 13조4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의 12조2000억원과 비교해 10.4% 증가한 수치임

- 관련링크:

<http://www.ajunews.com/view/20161228082613823>

기본과 원칙, 글로벌과 지속성장-새해 주요 기업 경영키워드('17.1.5)

- 각 화장품기업들이 지난 2일 일제히 시무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음
- 주요 기업들이 밝힌 올 해의 경영방침을 요약하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특히 내수부진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에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ng.com/기본과-원칙-글로벌과-지속성장/>

연우·뷰티화장품 등 5개사 차세대일류생산기업으로 눈길('17.1.3)

- 연우, 뷰티화장품, 대덕랩코, 라파스, 진코스텍 이 차세대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에 선정됐음
-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지난해 12월 22일 개최된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에서 93개 품목 106개 업체를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신규 선정했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303/cat/10/page/1>

각계 신년사로 본 올 화장품산업 기상도('17.1.4)

- 새해를 맞은 화장품산업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음. 우리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 중국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글로벌 시장에서 K-코스메틱 열풍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이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임

-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화장품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우세하며,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을 선도해나가는 정부와 단체 및 주요 기업들은 저마다 ‘초심’과 ‘기초’ 그리고 ‘전문성’ ‘집중’ 등을 올해의 주요 경영(정책)목표로 제시했음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308/cat/10/page/1>

‘K-코스메틱’ 꿈·희망 펼칠 세계 무대 열린다(’16.12.28)

- 2017년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화장품 박람회 개최가 열린다. 1월 ‘코스메 도쿄 & 테크 미용 전시회’부터 12월 ‘두바이 국제 추계 종합 박람회 - 스마트 리빙’에 이르기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시회는 40여개에 이릅니다
- 뷰티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유아·아동 전시회, 의료기기·건강용품 전시회, 유기농·식품 전시회 등 10여개의 전문 박람회도 주목할 만함

- 관련링크:

<http://www.beautynury.com/news/view/75233/cat/10/page/15>

화장품 온라인채널, 오픈마켓 강세(’16.12.29)

-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유통 몰 등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화장품 거래액은 지난 한 해(11월말 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3개 온라인 유통채널 가운데 가장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던 오픈마켓에서의 화장품 부문은 11월 성장률 42.5%를 기록, 지난 11개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음

- 관련링크:

<http://cosmornig.com/11월-유통업체-매출-전년동기대비-6-5%/>

◦ 국내외 정보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시행 안내

- ◆ ‘2016년 8월 15일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에서는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중국 국내 수화인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상 등록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http://ire.eciq.cn>))을 통하여, 등록을 진행하고 작성한 수입 및 판매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본 규정은 수입자의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을 감독함으로써 수입화장품을 추적 관리하며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회수하기 위함이며, '17.3.1부터 시행된다.
- ◆ 《수입화장품 국내 수화인 등록, 수입기록 및 판매기록 관리규정》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하여 질검총국에서는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상 등록 정보화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http://ire.eciq.cn>)를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 ◆ ‘16년 12월 20일부터 수입 화장품 수화인은 ‘수입 식품 화장품 수출입상 등록시스템’에 등록 정보를 제출하고 기업 공상등록지의 검험검역기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 해당 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체에서는 제품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추적 관리를 진행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화장품 시장 동향

사우디 미용용품시장 성장세 지속

- 가처분 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세 -

□ 시장 개황

- 2010년 이후 사우디의 미용 및 개인용품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15년도에도 전년대비 14.7%가 늘어난 초고속 신장세를 보임.
-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한 사우디의 미용 및 개인용품 시장 규모는 199억2000만 리얄(약 53억1000만 달러)로, 2010년 대비 83.1%가 성장
 - 이를 품목별로 구분해보면 향수류가 전체 시장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모발용품 13.9%, 구강용품 13.4%, 피부용품 12.8%, 남성용품 11.4%, 색조화장품 10.1%의 순서를 보임.
-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대중제품의 비중은 52% 정도이며, 저명브랜드인 프리미엄급 시장의 비중도 48%나 돼 어느 제품보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비중이 높은 편임.

사우디의 연도별 개인 및 미용용품 판매 추이

(단위: 백만 리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향수류	4,038.1	4,494.4	5,162.8	5,888.6	6,846.3	8,259.1
모발용품	1,549.1	1,726.9	1,943.8	2,176.6	2,437.7	2,723.0
구강용품	1,584.1	1,758.1	1,954.3	2,622.2	2,401.3	2,673.8
피부용품	1,582.5	1,734.6	1,920.7	2,116.0	2,336.3	2,556.4
남성용품	1,194.4	1,349.1	1,541.4	1,761.2	2,012.0	2,273.8
색조화장품	1,138.6	1,284.8	1,445.9	1,614.9	1,803.9	2,006.4
합계	10,881.0	12,103.3	13,668.0	15,340.3	17,363.4	19,921.8

주: 일부 품목별 중첩으로 각 제품의 합계는 전체 합계를 초과함.

자료원: Euro Monitor

□ 수요 동향

- 사우디의 개인 및 미용용품 시장은 사우디인들의 저명 일류브랜드 소비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로, 소비의 기준이 브랜드와 유명세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사우디의 개인 및 미용용품 시장이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모를 꾸미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데다가 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 기업의 공격적인 판매활동 및 소매채널의 확대 등의 종합적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노동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우디인들은 개인적인 몸 치장이나 용모, 나아가서 위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 직장에서의 위상이나 판매활동, 고객관리 등에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복장과 미용에 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신경을 쓰게 된 것이 급격한 시장 확대를 가져옴.
- 개인용품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향수의 소비임. 사우디의 전통향수 브랜드인 Arabian Oud와 Abdul Samad Al Qurashi와 같은 브랜드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큰 폭의 시장 확대를 기록함.
 - 이 회사들은 주로 전통 향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최고가의 프리미엄급 향수로 사우디인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편임.
- 기타 개인용품 및 미용용품분야의 또 하나의 경향은 천연성분 제품들의 폭발적인 인기임. 특히 여성들이 미용용품의 성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피부 친화적이라고 홍보하는 미용 및 개인용품의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함.
- 색조 화장품에서는 미네랄 제품의 인기가 높았고 목욕용품, 피부 모발용품으로는 알로에 성분이나 코코넛 오일, 유기농 오일, 시어버터와 같은 천연성분으로 제조된 제품들이 높은 인기를 구가함.
- 사우디는 지난 2014년 이래로 유가가 하락하고 사우디 경제의 불황이 본격화됐음에도 미용 및 개인용품의 시장은 경기변동과 상관없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이미 소비자들은 미용 및 개인용품에 대한 열정적인 소비경향을 보여주고, 관련 기업들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판촉활동과 광고활동을 통해서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경쟁 동향

- 사우디의 미용 개인용품시장은 전 세계의 유명브랜드들이 거의 대부분 진출해 있어 완전 경쟁에 가까운 치열한 경합을 보여줌.
- 이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영국과 네덜란드의 합작기업인 Unilever로 사우디 전체 시장의 11%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서 P&G(약 11%), Loreal(약 8%), LVMH(약 4%), Beiersdorf(약 3.5%), Estee Lauder(약 3%) 순임.
- 사우디 전체적으로는 약 30개의 국제적인 브랜드들이 매년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이들은 사우디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사우디 국내 혹은 해외에서 제조된 자사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음.
- 무명의 브랜드가 사우디 시장에 신규 진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이미 사우디 전역에 유통망을 확보한 기업과 협업, 활발한 광고와 판촉활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임.

□ 전망

- 사우디 국민들은 건강상의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위생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인식의 성장은 공공인식 캠페인을 비롯해 전문 의료인들이 주관하는 위생 관련 교육 등으로 이뤄진 정부 개입의 결과이기도 함.
-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는 메르스와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병을 경험함. 메르스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유는 세계 각지에서 사우디로 유입되는 많은 성지순례자들 때문임.

- 여기에 사우디 특유의 먼지 폭풍과 고열의 기후들이 호흡기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치명적인 질병 방지를 위해 액체비누, 다양한 목욕용품과 물 티슈와 같은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탈취제, 향수, 소독제, 청결제 등의 수요가 증가함.
- 향후 사우디는 메카와 메디나의 두 성지에 유입되는 순례객을 현재 대비 4배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유입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 확산 방지와 개인위생관리를 위해 관련 용품들이 더 많이 소비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정부의 보건 위생에 대한 교육 강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전환 등으로 위생과 미용제품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항균, 살균 및 유사 특성, 특히 액체 비누 및 기타 목욕 제품에서도 그 기능을 더욱 강화시킨 제품들이 지속 등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청소년 및 젊은 층의 정보전달 네트워크인 소셜미디어는 관련 제품의 정보와 트렌드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해 역동적인 시장의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관련 기업들은 이들을 최대한 활용한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소비자들 역시 자신의 의사와 취향을 이러한 매체를 통해 전파하고 공유할 것으로 전망돼, 소셜 미디어가 향후 소비자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매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됨.

-향후 사우디의 미용 및 개인용품 판매 추이 전망

(단위: 백만 리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향수류	9,727.2	11,337.0	13,105.4	15,162.2	17,417.3
모발용품	2,988.1	3,289.6	3,602.5	3,940.3	4,320.1
구강용품	2,926.9	3,213.7	3,501.5	3,790.1	4,096.5
피부용품	2,745.1	2,958.4	3,173.3	3,402.2	3,648.3
남성용품	2,513.5	2,786.0	3,074.1	3,390.0	3,728.4
색조화장품	2,192.3	2,399.9	2,612.4	2,839.3	3,080.6
합계	22,433.8	25,225.3	28,203.0	31,535.9	35,162.5

주: 일부 품목별 중첩으로 각 제품의 합계는 전체 합계를 초과함.

자료원: Euro Monitor

□ 시장 확대방안

- 사우디는 소비재의 경우 유명브랜드 선호 경향이 어느 나라보다도 강함. 따라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미용, 개인용품의 경우는 유럽 및 서구 브랜드의 선호도가 어느 분야보다도 강하게 나타나, 우리 제품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신규 브랜드로 사우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내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유통능력에 편승해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임.
- 사우디에서 한국 브랜드는 유럽과 서구 브랜드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시장 확대가 용이한 편이며, 각종 소비재 전시회와 유명 유통망을 상대로 한 활발한 판촉활동이 필요함.
- 최근 사우디 유통업체 중 한국 브랜드 취급을 희망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이들과 체계적인 제휴와 전략을 공유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 도출도 가능함.
- 개인 미용용품 중 시장 확대가 가장 용이한 분야는 피부용품과 구강용품 등이며, 목욕용품과 영아용품도 현지 유통 유통업체와 제휴해 체계적으로 진출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Euro Monitor, Forbes, Arab Consumer Market 및 KOTRA 리야드 무역관 자료 종합

법령 정보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국내 법령 정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발의 안내(2016.12.29.)

-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
 -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
 - 원료목록의 사전보고 위반 시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2017.01.16.(월)까지 수렴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발의 안내(2017.01.05.)

-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 및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함

※ 우리협회에서는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2017.01.16.(월)까지 수렴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회 업무추진현황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예정 행사

○ 제68회 정기총회 일정 안내

◆ 우리협회는 제68회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7. 2. 8 (수) 오전 11시

나.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사파이어 볼룸

○ 2017년 화장품관련 디렉토리 (국문, 영문) 수재 신청 안내

◆ 우리 협회에서는 화장품관련 기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외 바이어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수출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각 기관의 정보를 취합하여 2002년부터 매년 화장품관련 디렉토리를 발행해 오고 있다.

◆ 내년에도 『2017 화장품관련 디렉토리』(국문/영문)를 발행할 계획이며, 2017.1. 20(금)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각 기관별로 해당 유형의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jacklbs@kcia.or.kr, Tel : 02-785-7985)하면 된다.

※ 본 디렉토리 수재 신청은 무료이며,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발행된 책을 무료로 송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디렉토리 영문판은 해외 바이어에게 배포될 예정이오니 영문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https://www.kcia.or.kr/Document/News/NEWS_020V.asp?dnSn=2130&table_name=B_NEWS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안내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내 [1~6월 수집정보 : 7월 중 보고, 7~12월 수집정보 : 다음 해 1월 중 보고]에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 화장품 유해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하며,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바이오 생약 정보) → 화장품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창구 개설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안전성 정기 보고 사용자 매뉴얼’을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화장품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제조판매업자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제조판매한 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2017.2.28(토)까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보고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 실적보고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실적보고 ➡ 실적보고하러 가기

※ 실적보고 자료 작성전에 ‘실적보고 관련 공지’에 게시된 자료(실적보고 작성 요령 등)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보고 시스템 리뉴얼중인 관계로 2017. 1. 20(금) 이후 실적보고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원료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으로 보고 안내

-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은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7년 2월 28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특히, 화장품 원료목록은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를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 보고토록 하여 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원료목록 보고시 반드시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만 보고토록 인터넷보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 따라서, 2017년부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원료목록 보고시 원료명이 표준화된 명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표준화 원료 명칭을 보내드리오니 사전에 점검후 보고될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된 원료목록 보고 시스템에서는 원료 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할수 없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로 하되, 다만 다음 성분은 제외하고 제출

-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않은 성분
-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나. 배합금지성분 화장품 법령 준수 확인

다. 성분명은 표준화된 명칭으로 용기등의 전성분 명칭과 동일하게 작성

※ 실적보고 시스템 리뉴얼중인 관계로 **2017. 1. 20(금)**이후 실적보고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료목록 보고시, 첨부파일의 표준명 1 또는 표준명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하실 수 없습니다.

◆ 추진 현황

○ 2017년 국가관 참가 해외전시회 일정 안내

◆ 2017년도 우리협회에서 국가관으로 참가하는 해외 화장품 전시회 일정입니다.

전시회명	개최일자	국가(도시)	지원기관	모집
인코스메틱유럽2017(in-cosmetics Global 2017)	2017.04.04~04.06	영국(런던)	중소기업청	모집중
중국상해화장품미용전시회	2017.05.23~05.25	중국(상해)	중소기업청	모집중
중국광주화장품미용전시회(추계)	2017.09.04~09.06	중국(광주)	중소기업청	5월중
홍콩화장품미용전시회(cosmoprof Asia 2017)	2017.11.15~11.17	홍콩	KOTRA	4월중

* 해외전시회 참가 관련 문의 : 임종근 부장(Tel 02-785-3898, e-mail : rootim@kcia.or.kr)

*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17년 중국상해화장품전시회 한국관 참가 신청 안내

우리협회는 중국상해화장품전시회에 매년 국가관으로 참여하여 참가사들로 하여금 중국화장품 시장을 개척에 일조하여 왔습니다. 2017년도 중국상해화장품전시회(2017. 5. 23 ~ 5. 25)는 대한민국의 화장품들을 적극적으로 중국에 홍보하기 위하여 한국관의 디자인을 고급화하여 참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층 강화되는 중국 화장품 제도 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있고 중국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2017년 중국상해화장품전시회 참가를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2017년 1월 13일(금)까지 우리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참가신청 : www.sme-expo.go.kr에 신청후 붙임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FAX : 02-782-6659, E-mail : rootim@kcia.or.kr)

※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후, 협회로 연락하여 수신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 2017. 1. 13.(금)까지

다. 신청금 납입 : 3,000,000원 (신청규모와 관계없음)

라. 계좌번호 : 816937-04-010639(국민은행)

(예금주 : (사)대한화장품협회)

마. 참가 신청규모 : 18㎡

※ 신청금은 참가사 선정에서 탈락 시 환불되며, 참가사 확정된 후 참가를 포기했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청금은 추후 참가비에 포함됨)

바. 담당자 : 임종근 : rootim@kcia.or.kr Tel : 02-785-3898)

◦ 인코스메틱스글로벌2017(인코스메틱 유럽) 참가신청 안내

우리협회는 화장품 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려 화장품 수출을 진작코자 정부의 지원으로 인코스메틱스글로벌2017(4.4~4.6)전시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시회 참가할 회사를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화장품 원료사는 붙임양식에 의거 오는 1월 20일까지 협회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참가신청 : 붙임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 (FAX 02-782-6659, e-mail : rootim@kcia.or.kr)

나. 신청기간 : 2017. 1. 20.(금)까지

다. 신청금 납입 : 3,000,000원(신청규모와 관계없음)

라. 계좌번호 : 816937-04-010981(국민은행) (예금주 : (사)대한화장품협회)

마. 참가 신청규모 : 9㎡, 13.5㎡(추첨 결정)

※ 신청금은 참가사 선정에서 탈락시 환불되며, 참가사 확정된 후 참가 포기시, 환불 불가합니다.(신청금은 추후 참가비 포함됨)

바. 담당자 : 임종근 부장 (e-mail : rootim@kcia.or.kr Tel 02-785-3898)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안내

- ◆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드리는 차원에서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을 안내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대행기관은 우리 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 혹은 추천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통하여 우리 협회에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은 일절 없으며, 대행기관과의 실제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붙임1을 참고하시어 대행기관측으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대행기관	
중국소재	베이징신금정기술서비스유한공사
	베이징재지시대
	베이징화화미품 화장품기술센터
	북경매리스
	알란
국내 소재	(주)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주)중국경영인증컨설팅
	정통아이비씨 주식회사
	한국피부과학연구원(주식회사 진셀팜)
	해외인증경영센터
	호경물산주식회사
	SMC 커뮤니케이션

※ 화장품 위생허가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붙임2.「중국 화장품 수입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 소식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한국방문위원회) 코리아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 참여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외래 관광객 유치와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 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이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외국인 대상 '코리아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
- 기 간 : 2017년 1월 20일(금) ~ 2월 28일(화), 40일간
- 대 상 : 외국인

나. 참여방법

- 참여기업 접수기간 : 2017. 1. 13 (금)
- 모집 및 접수 : 코리아그랜드세일(www.koreagrandsale.co.kr)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다. 참여혜택

- 홈페이지 및 SNS 채널 등을 통한 참여기업 노출
- 행사 내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참여
- 행사종료 후 평가를 통한 우수참여기업 포상 등

라. 문의처 : 한국방문위원회 마케팅팀 김현준 과장 (02-6272-7305, hjk@vkc.or.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기업유치 안내

주변인프라

보건의료행정타운

“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입주 ”
- 생산부터 인증, 허가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통인프라

국토의 중심에, 오송이 있습니다

- KTX오송역 ~ 서울 45분
 - 전국유일 고속철도 분기역 (경부, 호남)
 - 전국 X축 연결 (충북선, 중앙선, 태백선 연계)
-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접근
 - 2개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청주IC, 오송 나들목)
중부고속도로(서양IC, 오송 나들목)
- 청주국제공항
 - 단지와 20분 거리에 위치
 - 37개 도시에서 국제선 운항 중인 동북아 핵심공항
- 평택항
 - 70km 내에 위치

인적자원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지원

BT 7개 대학, 900여명 충북대학교 제약학과	IT 13개 대학, 2,200여명 영동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자동차 8개 대학, 800여명 한성대학교 자동차공학과
---	--	--

가능인력 양성

한국바이오마스터고, 충북반도체고, 충북에너지고 등 특성화고등학교

안전한 도시

재난재해 없는 첨단업종 최적지

국립환경과학원 평가

지진, 홍수,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지 충북

오송바이오폴리스



충북 CHUNGBUK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경제자유구역청

연락처 : 투자유치팀
전화 : 043-220-8374
이메일 : fez101@korea.kr
홈페이지 :

<http://www.cbfez.go.kr/site/eco/main.do>

오송 바이오 메디컬 지구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본부, 4개 센터)

시설명	연면적	부처	역할
신약개발지원센터	22,067㎡	미래창조과학부	신약후보물질 평가 및 공동연구개발 등
창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10,234㎡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설계 및 시제품 제작지원, 개발 등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5,690㎡	보건복지부	임상시험용 시료생산, 기술이전 지원 등
실험동물센터	7,528㎡	보건복지부	동물실험시설 청정, 실험동물 지원 및 관리 등

오송 바이오 메디컬 지구	
▶ 보건 의료 필수 연구지원시설(3개 시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연면적 : 12,301㎡ - 준공일 : 2012.4월 - 역할 : 국가단위 인체자원 총괄	국립의과학자식센터  - 연면적 : 6,669㎡ - 준공일 : 2013.12월 - 역할 : 신종·변종 병원체 진단 및 백신개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 연면적 : 9,900㎡ - 준공일 : 2016.10월 - 역할 : 고품질 줄기세포 수집·보관

◦ 강원도 기업유치 관련 안내

강원도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의 기업을 강원도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강원도내로 이전하거나 분공장을 설치할 경우 저렴한 부지 및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궁금하신 회사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강원도 기업유치과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Tel : 033)249-2856

Fax : 033)249-4101

<http://provin.gangwon.kr>

※ 자세한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사 뉴스

K o r e a
C o s m e t i c
A s s o c i a t i o n

○ 추후 발행되는 코스메틱리포트에 협회 회원사 소식을 홍보하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행사나 구인, 신제품에 대한 홍보 등 코스메틱리포트에 게재할 내용이 있는 회사의 담당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아래의 연락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 : 진행된 행사 및 진행 예정 행사, 신제품 소개, 구인 등
- 자료제출 및 문의 : 대한화장품협회 이병수 (02-785-7985, jacklbs@kcia.or.kr)

◉ 협회 주소 및 연락처



Tel 02-785-7984 Fax 02-782-6659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홈페이지 www.kcia.or.kr

협회 SNS를 통해서도 함께해요~!



www.facebook.com/hikca



twitter.com/kocosmetic

QR코드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세요~!



(사)대한화장품협회
Korea Cosmetic Association